



활동보고

창립35주년 감사예배
907기후정의행진, 기후행동 스크린& 마이크
은평전환마을 탐방기
고양시성평등기금 결과보고회

활동계획

제36회 고양YWCA 정기총회



에코페미팀 은평전환마을 탐방 '밥풀꽃' 앞에서

한 드라크마의 비밀

누가복음 15장 8-10절

김경환(동녘교회 담임목사)

저희 교회에서 공동체 텃밭을 일굽니다. 지난 6월에 고구마순을 심었는데 여름 태양이 너무 더위 적지 않은 순들이 죽었습니다. 7월에 또 심었는데 일부는 또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놀들이 있었고 그것이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 중 어떤 애들이 살아남았을까요. 뿌리가 땅속에 제대로 안착된 애들입니다. 작렬하는 태양 별에 땅위의 순들이 타 죽어가도 뿌리가 안착된 애들은 땅속에서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다시 새순을 틔웁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생명은 살아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곁이 화려하고 거창해보여도 뿌리가 죽으면 얼마 가지 못합니다.

뿌리는 정체성입니다. 뿌리를 돌보는 것은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다지는 일입니다. 기독교역사를 보면 교회가 위기를 만나면 성서로 돌아가자고 했고 교회가 타락하면 초대 교회 본래의 정신을 회복하자고 했습니다.

YWCA의 뿌리는 뭘까요? 첫째, 기독교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공동체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 하셨습니다. 안식년, 희년, 약자보호법, 책임보상법은 아픈 사람,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 일일노동자, 날품팔이, 과부, 고아, 노예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이야 상관없지만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도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천명(天命)으로 떠맡들고 사셨던 분입니다. 가난하다고, 없다고, 못 배웠다고, 여자라고, 소수자라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도 사람이다” “당신도 귀한 존재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생명애를 가지고 사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어떤 존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따뜻한 시선을 주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둘째, YWCA는 창립 때부터 여성들을 위한 기독교운동단체였습니다. 1922년에 창립된 한국 YWCA는 일제 강점기 시

기, 농촌으로 내몰렸던 여성들과 도시안의 가난한 여성노동자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한국 전쟁 후에는 참혹한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미망인과 고아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민주화시대에는 산업현장에서 고난 받는 여성근로자들의 인권을 위해 애써왔습니다. 근대에 와서는 탈핵, 기후위기, 성평등, 평화통일 등 여성을 넘어 시대의 가장 고난받는 현장 안에서 활동했습니다. 특히 고양YWCA는 고양시의 가장 고난받는 현장에 가면 언제나 함께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고양YWCA를 고양시의 ‘엄마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성서본문에서 여인은 열 드라크마 중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드라크마는 물질적 의미가 아닙니다. 팔레스틴에서는 혼인한 여인의 표시로서 은사슬에 열 개의 은전을 꿰매 머리 장식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결혼 장식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신부가 결혼식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부케를 잃어버린 상황인 겁니다. 그녀는 무척이나 당황했고 밤새도록 눈에 불을 켜고 찾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는 단순한 한 개가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YWCA가 시대의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했던 일들은 그것이 무엇이었던 한사람, 한 현장을 지켜낸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그물망을 살려낸 것입니다. 내 몸에 큰 병이 찾아오면 그 부분만 아프지 않습니다. 삶 전체가 무너지고 가족 전체가 혼들리는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나 병이 회복되는 날, 병만 고쳐지지 않고 내 삶과 가족과 나와 연결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생명의 그물망이 살아납니다. 하나가 하나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너무 많은 일보다는 하나님을 하더라도 우리의 뿌리와 근본을 돌보는 여성을 사십시오. 어떤 생명을 대하는 존재 자체를 향한 따뜻한 시선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의 가장 소외진 그들, 아픈 손가락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고양 YWCA가 걸어온 길입니다. 그때 부동켜안고 살려가는 그 하나는 하나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서른다섯 살 고양YWCA

창립35주년 감사예배

김혜경 (고양YWCA 회장)



둘째 아이 임신 중일 때 들어서게 된 고양 와이. 저는 그때 서른다섯이었습니다. 도중에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던 2년 반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줄곧 와이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그 안에서

끊이지 않고 사랑과 헌신의 예수님 모습을 닮고자 애쓰던 많은 고양 와이의 사람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실무자이든 자원활동가이든 한결같았던 그들의 미소와 마음을 떠올리며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또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셨던 주님을 와

이를 통해서 여러 번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 없음을 다시금 회개하고, 내 마음을 다잡은 일이 여러 번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물결 속에 서 있는 지금의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지난 35년 동안 고양 와이를 스쳐 간 그들의 마음속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하심이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똑같이 자리하심을 믿고 확인하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제로부터 계속 함께하실 것을 믿으며... 그리하여 큰 변화의 흐름이 시작되는 이곳에서, 35주년 감사예배 때 함께 외쳤던 글귀를 다시 마음속으로 외쳐봅니다.

한 사람의 백 걸음은 산책이지만,
백 사람의 한 걸음은 행진입니다.



10.31(목) 고양YWCA에서

기후재난은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다

907기후정의 행진, 기후행동 스크린&마이크

김수현 (고양YWCA 간사)



매해 9월 중순에 있는 기후정의행진이 올해도 9월7일(토)에 단소배출의 1번지 강남역에서 열렸다. 고양YWCA를 포함한 615개 시민단체와 개인들이 참여하여 약 2만명의 시민들이 함께 강남역에서 집회 후 역삼역, 선릉역, 포스코센터, 삼성역 사거리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폭염과 폭우 등의 기후재난으로 심해지는 기후불평등에 맞서, 현재 생태파괴와 난개발을 멈추고,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로 전환해 할 것을 외쳤다.

고양YWCA 에코페미니즘 팀원들과 어린 자녀까지 동행한 가족과 함께 907기후정의행진을 끝까지 한 우리의 발걸음은 9월12일(목) ‘돈의동의 여름’ 다큐멘터리 무료상영회로 이어갔다. 쪽방촌의 여름나기에 관한 다큐멘터리인 ‘돈의동의 여름’을 함께 본 뒤, 각자의 소감을 나누었다. 또한 현재 한국의 쪽방촌의 상황을 공유하며, 기후불평등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주거안정지원에 대한 시급성도 절감하였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기후재난과 기후불평등은 더 이상 멀리 해외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 나의 가까운 이웃에게 닥친 일이며, 현재 겪는 일임을 상기할 수 있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힘써야 하는 기후행동은 탄소감축을 위한 노력뿐 아니라, 앞으로 더욱 심화 될 기후불평등과 기후재난에 대응법을 모색해가는 것이다. 그 중 하나가 지금 여기,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연대하는 것임을 알려주는 ‘돈의동의 여름’ 다큐멘터리는 기후불평등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우리의 가슴 한 구석을 따뜻하게 해주며 연대에서 희망을 찾고 힘을 얻게 해 주었다. 올해 돈의동의 겨울은 어떠할까? 기후재난은 결코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체 어디가 전환마을인 거지?

은평전환마을 탐방기

박수진 (고양YWCA 회원)

따스한 가을볕이 한창이던 지난 10월 25일(금)에 은평전환마을을 다녀왔다.

점심 준비로 분주한 채식식당 ‘밥풀꽃’에 모여 은평전환마을 대표인 소란 님의 마을 소개를 들었다. 올해 10년 차를 맞은 밥풀꽃은 동네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햇빛부엌을 거쳐 지금의 모습이 되었고, 서울시 유일 마을 기업으로 남을 수 있었다. 그만큼 마을 기업 운영이 어렵다는 것 이기도 할 텐데 웃으면서 기복이 있다고 말하는 소란님의 낙관적인 태도가 인상 깊었다. 영국 토토네스에서 전환마을을 경험하고 다시 자리 잡은 은평구에서 전환마을을 전 세계 전환마을과 마찬가지로 3명 안팎의 적은 지인들끼리 식사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하다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강연과 질문이 끝나고 어느새 하나둘씩 자리잡은 단골 손님들과 함께 우리도 함께 식사했다. ‘아빠맘 두부’ 같은 로컬 식재료와 고양시 등 인근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 얻은 제철 농작물을 이용해 한가득 차려낸 오늘의 밥상은 보기도 좋았지만, 맛은 더 좋아 밥 한 툴도 남기지 않고 먹었다.



다음 일정은 구산동 도서관마을이었다. 여느 도서관과는 달리 주택가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어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찾기 어려웠다. 구산동 도서관마을은 ‘우리 동네에도 도서관이 있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꿈을 오랜 노력 끝에 직접 현실로 만든 귀한 결과물로, 무려 15년이 걸려서 지금의 도서관마을이 되었다고 한다. 도서관 설립이 불확실해 포기하거나 무관심할 수 있는 시점에서도 능동적으로 도서관을 상상하는 마을 축제를 열며 희망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인



상 깊었다. 보통의 도서관과는 달리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아늑한 공간과 함께 뭉치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곳곳에 배치되어 오래 머물고 싶었다.

지하철을 타고 이번 탐방의 종착지인 햇빛상점으로 향했다. 기존의 제로웨이스트샵과 다르게 헌책과 버려지는 천과 옷을 새활용한 로컬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시도도 새로웠다. 햇빛상점 대표님은 직접 사용해 보고 느낀 상품의 장단점을 알려주는 동시에 많은 제로웨이스트숍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동네 상점을 이용해달라고 부탁하셨다. 나무에서 유래된 CXP 용기, 수세미, 템페 등 평소에 필요했던 물건을 구매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대체 어디가 마을인 거지?’ 은평전환마을의 첫인상은 탐방을 마치고 ‘아, 근처에 살고 싶다’로 바뀌었다. 곁으로 보기에도 여느 평범한 동네와 다르지 않아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지역적 경계를 넘어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연대로서의 마을을 다시 보게 되었다. 기후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연대와 상상, 희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낀 기회였다. 🌟



세상을 바꾸는 시간, 지금 고양시 성평등기금사업 결과보고회

#기후세바시

고양YWCA 중점운동본부

고양YWCA는 2024년 성평등기금사업으로 기후 위기 시대에 젠더 관점을 기반으로 기후정책에 여성의 목소리를 담은 ‘에코 페미니스트들의 유쾌한 세상뒤집기’ “그렇다고 지구를 떠날 수는 없잖아” 사업을 일년간 진행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자급의 삶을 살고있는 많은 에코페미니스트들과의 만났고, 여성과 기술(공구사용, 전기교체등)을 연결해 자급 기술 역량을 높이는 실습도 하였다. 또한 에코페미팀원들은 후속모임으로 “누구나 기술학교”를 통해 자신의 기술(호흡, 뜰뜨기, 정리수납, 기후인권 등)을 공유하였고, 의류 쓰레기를 줄이는 21% 의류교환파티를 올해도 진행하였다. 이렇게 한 해동안 진행한 기후행동의 시간을 돌아보는 자리로, 11월 7일(목) 일산동구청에서 ‘세상을 바꾸는 시간, 지금’장을 열었다.

“나는 왜 기후활동가로 사는가?”라는 주제로, 청소년에서부터 시니어 세대까지, 그리고 지역사회여성으로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고양시 탄소중립센터 연구원을 통해 고양시 탄소중립현황 및 계획을 들어보는 자리였다. 또한 기후 변화에 취약한 계층과 그렇지 않는 계층의 사람들로 역할을 나누어서 실험해보는 기후불평등체험도 함께 해보며, 기후 위기를 직접 실감하는 시간도 가졌다.

윤현정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를 통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기후대응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각성하였고, 미래세대가 아닌, 지금 여기서 함께 주체자로 서 있는 그들을 확인하였다.

윤정숙(녹색연합 공동대표)시니어기후행동가 역시 ‘60+기후행동’ 활동을 통해, 성장발전만을 꾀하며 망가트린 세대의 반성과 미안함을 전하며, 시니어세대가 더 가열차게 기후행동을 해가며 책임을 져야함을 발언하였고, ‘고양60+기후행동단’의 탄생을 촉구하며 도전하였다. 한 해 동안 함께 에코페미활동을 성실하게 참여한 세 분의 지역사회여성 기후행동가 고미, 이명순, 류지연님의 나눔속에는 1%의 생산자가 되기위한 텃밭의 시작과 소비패턴의 변화와, 스스로 세면대 배수구를 뜯어 청소하고, 외주화 주었던 수선을 직접하는 등의 삶의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는 이야기를 나누어주었다. ‘기후세바시’는 세대와 계층의 구별없이 모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앞에, 우울과 절망이 더 가까운 현실속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눔으로, 공감과 지지로 유쾌하게 기후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자리였다. 지속가능한 삶으로 전환해가는 원동력은 이에서 나온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은 지금, 여기이다. W



윗줄 왼쪽부터
윤정숙(녹색연합 공동대표),
윤현정(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강성구(고양시탄소중립센터 연구원)

아래줄 왼쪽부터
고미(지역사회여성기후행동가),
이명순(지역사회여성기후행동가),
류지연(지역사회여성기후행동가)

본부

고양YWCA 신년시무예배

일시 2025년 1월 2일(목) 오전10시

장소 고양YWCA

제36회 고양YWCA 정기총회

일시 2025년 2월 6일(목) 오전11시

장소 문촌9사회복지회관 3층 대강당

내용 2024년 사업결과 및 결산보고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문의 031-919-4040(고양YWCA)

겨울학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 생활영어

실용영어회화를 통한 생활영어 도전기!

왕초보반(Basic)

대상 영어를 다시 시작하고 싶은 왕초보분

(단, 읽기는 가능해야 함)

내용 기본동사의 다양한 활용법을 배워 일상생활 및 여행영어

기본분장 익히기

기간 1/10~2/28 (2개월/110,000원)

일시 매주 금요일 10:00~12:00

초중급반(Pre-intermediate)

대상 영문법도 알고, 어휘량이 많음에도 듣기와 말하기가 어려운 분들

내용 사용빈도 높은 구동사로 다양한 상황별 실전영어표현 익히기

교재 영어회화 구동사(출판사: 사람in)

기간 1/8~2/26(2개월/110,000원)

일시 매주 수요일 09:30~11:30

▣ 원어민회화

원어민에게 차근차근 배우는 단계별 영어정복

기간 12/3~2/27(3개월/매주화·목요일)

일시 직장인반 - 08:00~08:50(210,000원)

초급반 - 09:00~09:50(165,000원)

중급반 - 10:00~10:50(165,000원)

토론반 - 11:00~11:50(165,000원)

▣ 알아차림 치유명상

내 안에 내재한 지혜와 힘을 찾아가는 시간

기간 12/4~2/26(3개월/210,000원)

일시 매주 수요일 10:30~12:00

▣ 민화

한국의 전통미를 체험하게 되는 수업

기간 12/6~2/28

일시 매주 금요일 10:30~12:30

고양YWCA가족사랑상담소

상담소 25주년 생일 및 활동가 송년회

일시 12월 27일(금) 오후 4시~6시

대상 상담소 실무자와 활동가

장소 샬롬방

문의 031-921-1366

고양시 여성의 쉼터

성탄 행사

일시 2024년 12월 17일(화)

장소 패밀리레스토랑

내용 쉼터 입소자& 주거지원 입주자를 위한 성탄절 행사

개별상담

일시 1월 중 매주 월, 화, 목

장소 여성의 쉼터

내용 입소자를 위한 개별심리상담

고양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커뮤니티 결과보고회

일시 2024년 12월 13일(금)

장소 친텍스바이케이트리 PDR2

내용 일하는 여성 동아리 및 고양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결과 보고

커뮤니티 지원

일하는 여성 동아리 지원사업

일시 2025년 2월~

내용 여성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커뮤니티를 발굴 및 동아리 활동비 지원

제4회 21%의류교환파티



9월20일(금)에 일산동구청 소강당에서 ‘제4회 21%의류교환파티’를 열었다. 지난 7월 여름 옷 위주의 교환에 이어, 가을·겨울옷의 교환을 위해 열린 이번 행사는 기존 참여자들 뿐 아니라, 새로운 참여 지역주민들까지 포함하여 60여 명이 참여하고, 총 270여 벌의 옷과 소품이 교환되었다.

제24회 고양YWCA나눔바자회



늦은 가을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지난 10월 18일(금) 강선 공원에서 나눔바자회를 진행하였다. 행사를 위해 천막을 칠 때까지는 오락가락하던 비가 오후부터 거세게 내리기 시작 해 24회 만에 처음으로 중간에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그러나 악천후 속에서도 많은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있었고 후원 받은 물품들을 거의 판매하여 취약여성시설의 난방비지원 을 위해 사용할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서 감사하였다.

작은사랑 나눔에 함께해 주신 착한기업·회원

고양신세계안과의원 고양시치과의사회 광천농협 기쁜우리작 업장 농협고양시지부 새빛안과의원 안양YWCA 올레떡집 일 산농협 일산온혜교회 파머스농장 한국화훼농협 한두레자치 회임원 고양YWCA이사·위원·회원

2024 한국 YWCA 확대정책협의회



10월 22일(화)부터 23일(수)까지 천안 재능연수원에서 한국 YWCA 확대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전국 50개 회원YWCA의 이사, 실무자들이 함께 해 한국YWCA 정책의 목적, 방향, 실행방법을 모색하고 운동 및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고양YWCA도 회원 YWCA와 사례를 공유하며 힘을 얻고 새로운 비전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

2024 YWCA 전국 증경회장 모임



9월4일~5일까지 1박2일동안 아산 온양관광호텔에서 ‘2024 YWCA 전국증경회장모임’이 있었다. 고양YWCA에서는 황 혜숙, 윤정애회장이 참석하였고 윤정애 회장이 전국증경 회장모임 서기로 선출되었다. 전 교육부 장관 김숙희 한국 YWCA연합회 증경회장의 ‘세상을 살고 보니까’ 특강을 시작 으로 YWCA정신을 되새기며 친목을 도모하고 현충사 문화 탐방으로 마무리되었다.

가사자치회 월례회



매월 둘째주 화요일 직업인으로서의 자질함량과 친목도모를 위한 가사자치회가 진행되는데 9월에는 기후위기행동을 위한 강의와 설거지바 만들기 행사, 10월 직업인의 자세에 대한 강의와 11월 영화관람을 하였다. 서로 일에 대한 노하우도 나누고 격려하는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대화예술어린이집과 함께하는 사랑나눔바자회



지난 11월 22일(금) 대화예술어린이집 원아들과 학부모들의 참여와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사랑나눔바자회를 진행하였다. 어린이집 원아들의 기부문화 교육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함께 사는 세상을 사고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 행사를 열게 되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후원함에 후원하는 원아들, 횟집을 운영하시는 학부모가 새벽부터 작업하신 회와 매운탕거리, 원장님의 손수 해물국물을 낸 어묵과 각종 해물을 넣은 해물파전을 판매하며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많은 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린다. 이번 사랑나눔바자회 수익금은 취약계층 여성들의 난방비 지원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고양YWCA/YMCA 연합예배



세계 YWCA와 세계 YMCA는 공동체의 기도 실천을 위해 매년 공동 기도 주간을 갖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왔다. 올해는 11월 13일 고양YWCA 살롱방에서 “자연을 통해 믿음으로 나아가기”란 주제로 고양YWCA, 고양YMCA 이사, 실무자 30여명이 모여 함께 예배하며 팔레스타인 및 우크라이나 땅의 평화를 위해 특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양 YWCA 이사연수



고양YWCA 이사들의 YWCA에 대한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법인 이사로의 역량 강화를 위한 2024년 고양YWCA 이사연수가 9월 27일에 진행됐다. 기독시민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다짐하며 예배와 기도로 시작된 이번 이사연수는 고양YWCA의 회원증모방안과 법인의 재정 안정화 워크샵을 통해 고양YWCA의 나아갈 바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다.

고양YWCA가족사랑상담소

고양시 여성안전 지역연대 캠페인



고양YWCA가족사랑상담소에서는 지난 10월29일(화) 14시 ~16시 고양문화광장에서 고양시 여성안전지역연대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상담소를 포함하여 고양시에 있는 16개 유관기관이 참여하였고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고양시. 모두가 안전한 고양시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상담소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나의 통념 돌아보기. 폭력감수성 테스트 등을 하며 참여자들이 자신을 점검하고 배우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고양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여성노동자 복지의 실태와 지원방안 마련'정책 토론회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는 2024년 10월 29일 일산서구청 대강당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협업으로 '여성노동자 복지의 실태와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와 이나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윤현옥 경기도청 여성가족국 고용평등과 과장, 한아름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센터장이 발표자로 참여 여성노동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방안과 니즈를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앞으

로도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는 여성노동자를 위한 정책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고양시 여성의 쉼터

마장호수 나들이

단풍이 물들어 가는 가을을 맞이하여 쉼터 가족들이 자연과 함께하는 나들이를 다녀왔다. 쉼터 가족들이 쉼터에만 있다가 나들이 간다는 자체가 설레고 '나도 단풍 여행 가는구나' 하는 즐거운 기쁨이 있었다. 마장호수 출렁다리도 건너보고, 둘레길도 걸어보며 심신의 안정감과 자연이 주는 편안함과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자연스러움을 느끼고 쉼터 가족들이 한 식구라는 단합의 자리가 되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2024년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보고대회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12월 6일 금요일 메가박스 백석밸리시타점에서 '2024년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보고대회'를 진행하였다. 고양시 가족 100여명과 고양 YWCA 김혜경 회장을 비롯한 연계기관의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2024년 다양한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건강가정사업을 위해 10년을 꾸준히 활동한 아이돌보미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나연 센터장은 "이번 사업보고대회로 고양시 가족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알게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Y가족 이야기

수상	9.03 9.03	조지혜 위원(양성평등주간 유공자 표창) 함윤희 이사(양성평등주간 유공자 표창)
입사	12.1	정정은 직원(가족사랑상담소)
퇴사	9.30 10.31	윤현진 상담원(고양시 여성의 쉼터) 장민 상담원(가족사랑상담소)
모친상	10.24	윤선영 이사
시모상	11.27	송주용 사무총장

생명사랑운동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 8. 1 ~ 11. 30)

- 고양YWCA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해주세요.
 - '아띠' 웹레터는 매월 회원님에게 보내는 YWCA 친한 친구의 편지입니다.
- 웹레터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또는 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회원님의 메일주소가 필요합니다.

회원
가입



CMS회원

가민경 강금화 강수연 강수영 강정희 강종두 강지선 강철희 강현숙 고경남 고경춘 고선미 고성연 고옥이 고정숙 과경자 과승현 구인순 권경숙 권기웅 권여정 권영희 권현명 김갑훈 김경 김광명 김규자 김근희 김나연 김다혜 김미경 김미란 김미화 김미희 김민숙 김민희 김병수 김병숙 김병학 김보현 김복순 김상범 김상은 김새별 김석우 김선미 김성남 김성숙 김성애 김성연 김세영 김세환 김소연 김수현 김시화 김신실 김애경 김영빈 김영환 김영훈 김옥순 김옥자 김용근 김우란 김원순 김유영 김은정 김은혜 김은희 김인애 김인영 김재원 김정연 김정윤 김정효 김종예 김종일 김주현 김중렬 김자선 김진호 김춘애 김충기 김태미 김태운 김태현 김해련 김행미 김현미 김현지 김형준 김형재 김형진 김혜경 김혜경 김혜진 김호석 김훈혜 김흥주 나종하 남궁성 남궁혜경 노미화 노진 마진아 모지영 문복희 문정은 문재은 문희경 문희숙 민경숙 민은식 민혜진 박귀영 박금연 박명철 박병준 박상근 박상현 박서정 박선영 박선주 박세연 박수진 박순옥 박순철 박순혜 박순화 박승희 박양숙 박영희 박용준 박윤희 박은희 박인숙 박점례 박정수 박종임 박지영 박지현 박진남 박진남 박진찬 박해동 반정인 반준우 방지연 배서현 백수정 백형자 백희정 변창호 서강기업 서동철 서순이 서연주 서영애 서옥경 서정미 성경자 성충희 성화스님 손미나 손희경 송경화 송미숙 송재율 신남철 신남희 신동란 신동욱 신두호 신선우 신영란 신인선 신재희 신정현 심수연 심형창 안길준 안인숙 안재홍 안지영 안지원 안준미 양민재 양승례 양애숙 엄태용 연영진 오다혜 오선아 오연주 오지혜 오진영 오향숙 오현화 오현희 오형근 우지민 원정한 유보라 유윤석 유진숙 유호심 유효경 윤문식 윤선주 윤영균 윤준구 윤희도 이강욱 이경애 이경혜 이대성 이동호 이두환 이명순 이명윤 이명화 이미영 이봉운 이상희 이서연 이선민 이선순 이선아 이수정 이수진 이숙 이승미 이신애 이신욱 이영남 이영원 이영희 이우진 이원희 이윤승 이은경 이은경 이은미 이은선 이은자 이은지 이은필 이의환 이인숙 이재기 이재영 이정민 이주기 이주영 이지연 이지욱 이진아 이창열 이태형 이해숙 이해원 이현령 이해영 이홍근 이황진 이효정 임상원 임수현 임수희 임용서 임은선 임은정 임지현 장선심 장영윤 장영진 장인남 장철영 장혜교 장희진 전경숙 전기철 전민자 전성혜 전수경 전철자 전철호 전현민 전혜림 전혜숙 정구상 정만진 정미선 정미영 정민경 정선미 정선우 정선희 정성래 정성순 정수아 정여진 정연시 정영석 정영한 정웅환 정원대 정원재 정은선 정정은 정정희 정현정 혁정조경 조성주 조영곤 조은경 조하영 조현경 조현미 조현주 조희정 주수연 지순정 진상기 진의연 진태을 차태수 차한 최경숙 최난경 최미선 최미정 최숙정 최영임 최유진 최은주 최종순 최준식 최지현 최진옥 최해욱 최해월 최향숙 하연화 한경숙 한경신 한금식 한명규 한미경 한보희 한상민 한선희 한송이 한수아 한숙원 한시우 한아름 한정수 함윤희 허공균 홍기표 홍성진 홍정민 홍현정 황소영 황영은 황태성 황혜숙 황혜영 황화선

평생회원

송주용

일반후원금

고양YWCA이사회 김유봉 나들목교회 노지현 송경애 순복음원당교회 승리교회 조지혜 한두레자치회

특별후원금

고양시치과의사회 고양신세계안과의원 남궁혜경 문희숙 서영아
새빛안과의원 안양YWCA 일산농업협동조합 일산은혜교회 최성원

고양YWCA

홈페이지



카카오채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후원 참여방법

CMS회원 : 월 만원 이상 평생회원 : 100만원

일반회원 : 연 3만원 특별회원 : 10만원 이상

어린이회원 : 연 5천원 Y틴회원 : 연 5천원

물품후원 : 후원해 주시면 작은 물품도 소중하게 받겠습니다.

당신이 후원한 회비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 가정폭력피해 여성의 안전과 자활을 돋기 위한 지원에 쓰입니다.
- 여성노동자를 위한 노동상담과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해 쓰입니다.
- 젠더관점으로 보는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모니터링활동과 정책제안에 쓰입니다.
- 청소년리더십개발 '주말대안학교 키다리학교' 운영에 쓰입니다
- 지역주민들의 에너지전환교육 및 기후위기 대응활동에 쓰입니다.

회비계좌 농협은행 301-0319-8488-91 (예금주: (사)고양YWCA)
후원계좌 하나은행 419-910034-39904 (예금주: (사)고양YWCA)

회원가입 문의 031-919-4040

제36회 (사)고양YWCA 정기총회

사단법인 고양YWCA 정관 제5장 제21조에 의거하여 총회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5.2.6.(목) 오전 11시

장소 문촌9사회복지회관 3층 대강당

내용 2024년 사업결과 및 결산보고,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문의 031-919-4040(고양YWCA)



승실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상담학과 신·편입생 모집 중

12월 1일 (일) ~ 2월 14일 (금)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직업상담사,
다문화사회전문가, 사회복지사(사회복지 복수전공)



국가장학금 소득연계 전액무료, YWCA 회원 25% 학비감면 문의 | 02-708-7801

발행 고양YWCA 발행인 김현경 편집인 송주용, 흥보출판위원회(권경숙, 윤정애, 정수빈, 최형숙, 함윤희, 헝혜숙) 편집 박선영, 김수현
주소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34 시대프라자 5층 전화 031-913-4042 팩스 031-919-4040 문의 031-919-4040
광고문의 031-919-4040